

제32호 2021.07

고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한 전략 ‘고양학’

고양학센터 센터장

문정화(사회복지학 박사)
jhmoon@gyri.re.kr

고양학센터 위촉연구원

김은진(동북아학 석사)
kim2236517@gyri.re.kr

Contents

- I. 지역학에 대한 관심
- II. 지역학 이해
- III. 지역학 현황
- IV. 지역학의 필요성
- V. 고양학 발전 방안



오늘날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 발전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발굴, 기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광역지자체 연구원에서 지역학 연구센터가 조직화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기초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1990년 인구 24만에서 2021년 현재 인구 108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도시정체성 확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고양학 연구의 중심점이 부재했고 고양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축적 및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지역학이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는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적,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다.

현재 지자체,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지역 대학 내 부설연구소, 문화재단, 그리고 개인 등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학 연구의 주체로서 지역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연구원에서 지역학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2개곳으로 1999년 충북연구원에서 충북학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기초지자체로는 100만 이상 인구로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될 수원시정연구원(2014), 창원시정연구원(2020), 고양시정연구원(2021)이 지역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역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고양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학은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지역학은 지역민의 지역 애착 상승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역학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지역학 연구를 통해 지역사편찬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학은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지역학으로서 고양학은 고양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이며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학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소중한 지역 관련 사료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굴이 어렵고 소실 가능성도 높으며 자료 구축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료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한 곳으로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역학은 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만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신과 가치를 발견하는 학문으로써 역사, 교육,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도시, 환경 등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총망라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와 현재에 기반한 지역사와 미래지향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지역학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가치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한 더 나은 지역 설계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넷째, 고양학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고양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양학센터는 체계적 고양학 연구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고양시 대학 및 연구소,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결집화할 필요가 있고 문화원, 박물관, 연구소, 기업, 민간협의회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양학에 대한 시민 확산과 대중화이다. 고양학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연구성과물을 공동 향유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I. 지역학에 대한 관심

GYRI

- 오늘날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 발전의 근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발굴, 기록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1960년대부터 호남문화연구소, 제주문화연구소 등 민간 영역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역마다 향토사, 유·무형 유산, 인물, 지명 등 뿐 아니라 지역의 현실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 활동들을 축적해 가고 있음
- 지방문화의 연구나 도시지역 문제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서울학', '부산학'과 같은 지역 명칭을 사용한 학문적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일이고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학연구소를 개설하면서 국내의 특정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이규태, 2007)
- 지역학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리즘(globalism)'에 대응하기 위해 '진정한 세계화는 지역으로부터'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함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광역지자체 연구원에서 지역학 연구센터가 조직화 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기초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각 지자체는 지역학 연구를 통하여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발굴하고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학은 또한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1990년 인구 24만의 고양군은 2021년 현재 인구 108만의 고양시로 성장하였고, 특히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도시정체성 확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고양학 연구의 구심점이 부재하고, 고양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임
- 고양학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복원하고 기록하여 공유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미래

비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공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근거와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지역과 지역학의 개념과 현황, 지역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역학으로서 고양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지역학 이해

GYRI

□ 지역의 개념

- 지역(地域, region, area)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이며 일반적으로 지리학의 용어로 받아들여지나, 많은 학문 분야에서 개념적 변화를 겪어 현재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조작적 정의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짐
- 지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의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으로 지역은 “그 자체로 지역성을 만들고 유지하고 변형되는 살아있는 실체와 같으며,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만 들어지는 공간과 기억의 장소로서 개인과 집단 간의 이념적·물질적 복합체”(최재현, 2005)¹⁾임

□ 지역학 개념

- 지역학의 사전적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목적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의 의미로,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학을 정의하면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문화 격차가 해소되는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²⁾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포함하는 ‘지역 개발’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역사·문화

1)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2)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자원의 개발, 환경보전·고용·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어,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학의 관점에서 지역학을 정의하면 ‘지역의 산업, 역사, 문화, 환경, 사회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목적의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역학에 학문적 개념으로 ‘지역학’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학에 대한 개념들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표1〉 지역학 정의

구분	개념
김대래(2001) ³⁾	특정 지역의 형성 과정을 시·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
정삼철(2019) ⁴⁾	한국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지방)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이해하는 학문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 간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학문
이창식(2016) ⁵⁾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표상성, 문화적 상징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하병주(2007) ⁶⁾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지역의 성립과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업 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연구
정정숙(2014) ⁷⁾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으로 개념정리할 수 있음

- 지자체 조례에서 나타난 지역학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

3) 김대래(2001),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부산학의 과제”, 부산광역시 도시혁신위원회

4)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공공정책, 164, 62-64.

5) 이창식(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6)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9(1), 249-276.

7) 정정숙(2014),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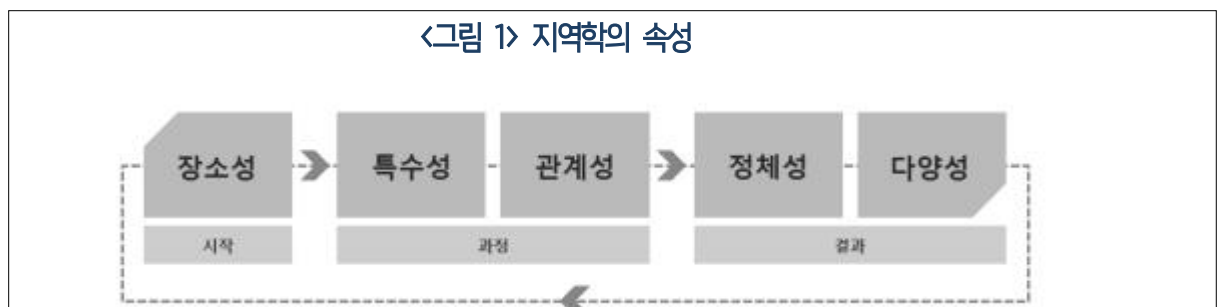
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함

-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함
-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함

- 이상과 같이 지역학에 대한 여러 정의를 정리해 보면, 지역학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음

□ 지역학의 속성

- 지역학의 속성은 다음과 같음(정정숙, 2014)⁸⁾
 - 장소성: 특정 장소로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 특수성: 특정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과거·현재적 해석과 미래의 방향 도출
 - 관계성: 해당 지역의 과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할 때,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지역주민 간 혹은 주변지역 혹은 중앙의 삼권(입법·행정·사법)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됨
 - 정체성: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함
 - 다양성: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그것들의 총체인 국가·지구촌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8)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Ⅲ. 지역학 현황

GYRI

□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 우리나라의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계 법률로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으며 교육부의 교육관계 법률로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지자체 조례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자체에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표2〉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구분	법률 및 조례명	주요내용
문화 관계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정의: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 인문학 자료의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에 명시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교육 관계 법률 (교육부)	평생교육법	-지역학 강좌와 연관됨: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등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5조 국내의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국사편찬위원회 업무 -12조 사료조사 등
조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3)	-문화원 사업 1. 향토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 3. 향토사료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2013)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2017)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학 연구 주체

-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호남문화연구소, 제주문제연구소 등 민간 영역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지역학은 1983년 한국지역학학회의 창립과 함께 시작하여 도시 계획학자, 지역경제학자, 지리학자들이 참여하며 점차 발전하기 시작함(김학훈, 2014)⁹⁾
-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동시에 세계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방의 문화적·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확산되었으며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역학 전담시설 설립이 시작되었음
- 현재는 지자체,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지역 대학 내 부설연구소, 문화재단, 그리고 개인 등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학 연구의 주체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학 연구센터 운영 현황

〈표3〉 지역학 연구센터 운영 현황

유형	지역학	소속기관	연구기관	설립
지자체 정책연구원 (12)	부산학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강원학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02
	경남학	경남연구원	경남연구원	2019
	울산학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충북학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1999
	전북학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제주학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
	대전세종학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2021
	대구경북학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2004
	수원학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14
	창원학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	2020
	고양학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2021
대학연구소 (14)	서울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3
	원주학	연세대학교(원주)	매지학술연구소	1999
	인천학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충북학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7
	충청학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2001
	충청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3

9) 김학훈, (2014). 한국의 지역학 30 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87-103.

	공주학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14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울릉학	경주대학교	독도울릉학연구소	2001
	부산학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02
	전북학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7
	호남학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63
	익산학	원광대학교	프라임사업단	-
지역기관 (5)	경기학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2005
	충청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학연구부	2004
	전주학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역사실	2002
	용인학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1992
	고양학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2020
지역연구단체 (2)	제주학	지역연구단체	제주학회	1997
	제주학	지역연구단체	제주학연구소	2004

○ 지자체 연구원 소속 지역학 연구센터 운영 현황

- 지자체 연구원에서 지역학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2개곳으로 1999년 충북연구원에서 충북학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외 강원연구원, 부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연구원 등 9개 곳이 있으며 100만 이상 인구로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될 수원의 수원시정연구원(2014), 창원시정연구원(2020), 고양시정연구원(2021)이 지역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 연구원의 지역학 연구센터 주요 설립목적은 살펴보면, 지역의 정체성 확인, 지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삶의 질 향상, 미래가치 구현, 미래선도, 문화 창달, 선진 주민 의식 함양 등임
- 지역학 연구센터의 주요 역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지역 연구 ② 발간사업(학술지 발간, 연구총서 발간, 교과서 발간, 시사 편찬) ③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④ 학술연구지원 및 교육사업(학술연구지원,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의 지역학 강의, 지역학 연구 인력 양성) ⑤ 세미나 및 포럼 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정리됨

〈표4〉 지자체 연구원 소속 지역학 연구센터 운영 현황

구분	충북연구원	강원연구원	부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센터명	충북학연구소	강원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	대구경북학연구소
설립일	1999.02.	2002.04.	2003	2004
목적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충북의 전통성과 역동성을 탐구하여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 문화를 창달함.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가치 구현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부산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지향적인 대구경북학을 정리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주민의식을 함양하며 대구 경북 시도민의 정신문화 재조명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구분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전북연구원
센터명	울산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전북학연구센터
설립일	2006.03.	2011.08.	2014.02.	2019.05.
목적	울산을 구성하는 사람·자연·산업·역사 등의 연구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을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제주학 및 지역사회 자원 구축	수원학, 정조학 등 역사 정신문화연구 및 편찬, 문화·인문학 도시 조성, 학술세미나 및 자료 발간	전북 정체성 확립, 전북 미래학 정립을 통해 천년전북의 역사문화를 탐구하여 다가올 미래를 선도
구분	경남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센터명	경남학연구센터	창원학연구센터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고양학센터
설립일	2019	2020.07.	2021.02	2021.04
목적	경남학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면서 경남학 관련 및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도민과 지역사회와의 가교역할 수행	'현재'에 대한 심화된 성찰 통해 보다 나은 창원의 '미래' 구상	대전시와 세종시의 문화, 역사·환경 중심문화기반 연구확충, 대전학과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업무 수행	고양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가치 구현을 위해 고양학 연구, 기록화 사업, 발간사업, 교류사업 수행

IV. 지역학의 필요성

GYRI

□ 지역정체성 확보

-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함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지역정체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지역정체성이란 지역이 가진 다양한 요소들의 통일된 자아로서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동일성’과 다른 지역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개별성’의 특성을 가짐. 동일성과 개별성의 형성은 도시의 자연환경에서부터 문화, 사회적 특성까지 다양한 존재와 개체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역민이나 방문객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등의 인지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지역경쟁력을 발휘하게 됨
- 지역정체성의 성격¹⁰⁾
 - 지역정체성은 과거 지향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양방향적 성격을 가진 유동적인 창조적인 것
 - 전통문화와 지역이미지를 통한 지역정체성은 문화와 전통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이미지의 창출 등과 같이 장소와 지역의 차별성에 기인한 시장에서 비교우위 확보에 도움이 됨
 - 지역정체성은 상징자본으로서 문화와 불가분관계에 있음. 문화에 초점을 둔 장소의 의미는 상품화, 산업화, 공간화를 통하여 소비와 판매의 대상이 되고, 세계화된 경쟁 속에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기 잡고 있으며 장소마케팅으로 개념화 됨
 - 오늘날 지역이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 자체가 연속적인 궤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정체성은 시간에 따라 다차원적이며 누적적 속성을 가짐
- 지역학 연구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문화적 조망과 지역 현안 및 발전에 관한 인식 확대를 통하여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지역정체성은 지역민이 자긍심을 갖고 애郷심을 갖게 만드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 애착상승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교통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생활양식이 보편화 됨과 동시에 많

10)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은 지역이 도시화됨으로써 지역이 고유한 특징을 잃어가고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에서 토착적·역사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지역 연구를 통해 지역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 애착도를 높임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¹¹⁾

- 또한 지역민의 지역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므로¹²⁾, 향후 다차원적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역학 연구를 통한 지역의 가치 재발견과 재지역화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것을 발굴하고 알리는 과정 자체를 통해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지역민의 지역장소감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역 문제점의 해결 과정에 있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지역학 연구의 본래 목적에 따른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 지역학은 융합적인 학문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향토사학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가능하게 함
- 고양학 연구를 중심으로 고양 전체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을 파악할 수 있음
- 학술네트워킹 등 지역 간 네트워킹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간 협조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함

□ 지역사 편찬의 구심적 기능 수행

- 지역사는 역사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임. 역사 편찬은 역사에 대한 서술을 넘어 현재와 미래 발전의 재료가 되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¹³⁾

1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애착도는 그 구성요소인 의존성, 사회적 친분, 정체성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김기현·김영춘(2018))

12) 김기현·김영춘(2018), “지역 애착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3)

13) 박승희(2017), “대구시사 편찬의 방향과 생활사·구술사 구성 방안”, 대구경북연구, 16(2)

- 고양시 등 49개 지자체는 시사 편찬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사 편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범위는 생태, 인문, 교통, 건축, 생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매우 방대하고 시라는 공간 안에서 시가 가진 오랜 역사부터 현재의 이르는 시간을 크게 다루며, 일반적으로 10권 내외로 편집해 발간함
- 시사는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도시 설계를 위한 근거가 되며 이에 지역사를 포함하는 지역학은 지역사의 존재 양상을 보다 다채롭게 규명하게 함으로써(이재민 외, 2020)¹⁴⁾ 시사 편찬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응

-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여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강조하여 차별화하는 지역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의 발전과 성장은 중앙에서부터 지역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서,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대두되며 지역이 획일화되지 않고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만의 차별점과 매력요소를 찾아야한다는 요구 확대¹⁵⁾
- 일원화된 세계화 사회에서 세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학 연구 필요

□ 미래가치 창조

- 지역학은 역사와 지리뿐 아니라 도시·문화·사회·예술·경제·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융합학문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 분야에 걸쳐서 정책에 대한 기획과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현안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해법 제공 및 미래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원도심은 도심공동화에 직면할 수 있는 이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깊이 고려해야 하며 이에 지역학이 필요함
- 지역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14) 이재민 외(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15) 김영일(2012),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27(1)

및 문화콘텐츠 발굴 촉진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할 수 있음

<표4> 지역의 문화유산 및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p>사례 1 서울 세운상가</p>	<p>우리나라 전자기술의 발전과 산업 부흥의 영화를 누렸으나 긴 시간에 걸쳐 슬럼화 되었던 세운상가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세운전자박물관과 전시관을 만들고, 청년 스타트업과 예술가들이 들어선 '세운 메이커스 큐브' 등을 통해 세운상가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재건</p>	 <p>그림 17 세운상가 (출처: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p>
<p>사례 2 동두천 광암동 턱거리마을</p>	<p>과거 미군 주둔지였던 곳에 마을박물관을 개관해, 기지촌의 역사를 복원하고 마을해설사 양성과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지촌 역사를 아카이빙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도모</p>	 <p>그림 18 동두천시 턱거리마을</p>
<p>사례 3 파주 군내면 캠프그리브스</p>	<p>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는 미국으로부터 기지 반환 후 전쟁사로 기억되는 역사적 배경을 녹여 평화를 체험하는 역사공원으로 재탄생 시키고, 미군 장교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유스호스텔로써 관광자원화 함</p>	 <p>그림 19 파주시 캠프그리브스</p>

Ⅴ. 고양학 발전 방안

GYRI



○ 고양학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

- 지역의 소중한 지역 관련 사료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굴이 어렵고 소실 가능성도 높으며 자료 구축 비용도 크게 증가하므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료 보존에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발굴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존하는 문헌 사료 뿐 아니라 현장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근현대의 기억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기록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함으로써 연구자나 일반인의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축된 자료는 교육, 연구, 창작 산업 등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이 됨으로써 자료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음¹⁶⁾(정지연, 2019)
- 경기 지역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의 문화자원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인 ‘경기도메모리’를 구축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16) 정지연(2019),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 29-53

물관, 제주문화방송 등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2021년 현재 10만 건이 넘는 문헌, 사진, 동영상, 연구 등의 아카이빙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음

-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고양시청, 고양문화원, 고양 지역 대학, 민간 연구자 사이에서 그동안 수집되어 온 고양학 관련 자료와 연구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 할 기반을 조성하고 자료들을 DB화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 다학제적 연구

- 지금까지 지역학은 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만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신과 가치를 발견하는 학문임
- 따라서 지역학은 역사, 교육,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도시, 환경 등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총망라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고양학 총서 발간 및 고양학의 체계화를 위한 학술지 발간 그리고 고양학 관련 연구 지원이 필요함

○ 과거, 현재에 기반한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

- 지역학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가치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 설계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 해야 함
- 민속, 지명유래, 전설, 설화, 인물, 역사 등 고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 연구와 더불어 미래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한 미래지향연구 병행 진행 필요함

○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고양학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양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함. 이에 고양학센터는 연구인력 주축의 체계적 지역학 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지역학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학은 지역에 애착을 가진 지역학 연구자들의 애향심과 의지로 발전을 해옴. 고양학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고양시 대학 및 연구소,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결집화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원, 박물관, 연구소, 기업, 민간협의회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양학 시민 확산과 대중화

- 지금까지의 지역학은 활발한 활동과 이에 따른 높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학문적 접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회고적 접근으로 인해 대중 친화적이지 않고 지역 현안 대응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옴¹⁷⁾
-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의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정주의식을 높이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고양학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확대가 필요함
- 현재 고양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 이수가 가능한 ‘고양학’ 강좌 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기관과 연계,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양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필요함
- 특히,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지역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고양학 연구성과물들을 공동 향유하고, 시민들에게 고양학의 주제들을 공모하며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 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주민이 기록 생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아카이브 구축 등도 필요함

17) 노영순·이상열(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고문헌

- 이재민 외(2020), “지역학으로서의 ‘세종학’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 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87-103
- 정지연(2019),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 29-53
- 박승희(2017), “대구시사 편찬의 방향과 생활사·구술사 구성 방안”
- 정정숙(2014),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 공공정책, 164, 62-64
- 이창식(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9(1), 249-276
- 노영순·이상열(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 32호

발행일 2021.07.30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